



소개

1931 폴로 클럽

2025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테마

주요 특징:

- 리베르소의 기원: 아이콘의 탄생 스토리를 생생하게 구현
- 4 가지 챕터로 구성된 스토리: 90 년이 넘는 리베르소의 감동적인 여정
- 몰입형 부스: 장인 정신과 교육 과정, 새로운 미식 경험을 기리는 공간

2025 년, 예거 르쿨트르는 1931 폴로 클럽을 통해 아이코닉한 리베르소 시계의 폴로 기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테마는 2025 제네바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리베르소가 탄생했을 당시, 사유지에서 폴로 경기를 펼쳤던 귀족 저택의 웅장한 마구간을 새롭게 재해석한 몰입형 부스를 선보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931 폴로 클럽을 통해 아이콘의 기원에 경의를 표하며, 1930 년 인도의 폴로 경기장에서 시작된 리베르소의 탄생과 그 변천사를 되돌아봅니다. 1920 년대는 ‘활기 넘치는 20 년대’ 혹은 ‘재즈 시대’ 라고도 불리며,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기술 진보, 경제 성장이 눈부셨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르데코 디자인양식이 탄생했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sporting gentleman)’와 폴로 경기가 보여주듯, 스포츠는 세련된 여가 활동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폴로는 인도, 영국, 아르헨티나, 미국 등에서 사교 생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사업가 시저 드 트레(César de Trey)는 인도를 방문하는 동안 이러한 배경의 한가운데 있었고, 경기에 열정적이었던 영국 장교들은 그에게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드 트레는 자크-데이비드 르쿨트르(Jacques-David LeCoultre)와 협력하여 시계 컨셉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예거와의 인연을 통해 프랑스 산업 디자이너 르네-알프레드 쇼보(René-Alfred Chauvot)에게 케이스와 회전 메커니즘 디자인을 맡겼고, 이로써 리베르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31 년 이래로 기존 디자인과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온 리베르소는 아르데코 라인과 균형 잡힌 디자인을 간직한 채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1990 년대에 메종이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기술적 정교함을 향상하면서 이러한 진화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생생하게 펼쳐지는 특별한 탄생 스토리

올해 워치스 앤 원더스 부스는 사유지에서 폴로 경기를 펼쳤던 귀족 저택의 웅장한 마구간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부스 주변에는 리베르소 세계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마구간의 말 운송용 화차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 요소가 사용되었습니다. 참나무, 광물, 어두운 금속 등 천연 소재는 말에 경의를 표하는 특별한 세계를 연상시킵니다. 견고한 건축 양식과 깔끔한 선, 절제된 컬러 팔레트는 1931 년에 유행했던 아르데코 스타일을 섬세하게 드러냅니다.

키가 6m 에 달하는 웅장한 말이 공간을 지배하며 부스 중앙으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체적형 LED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입체적인 '조각 작품'은 그 아름다움과 힘을 보여주기 위해 360 도 회전하면서 홀로그램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리베르소의 기원을 설명하는 3 분 분량의 쇼는 30 분마다 진행되며, 어두워진 부스가 극적인 효과를 더해줍니다.

3 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의 각 구역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리베르소의 이야기를 확인하거나 신제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방문객을 위해 가이드 투어가 제공됩니다.

4 가지 챕터로 구성된 감동적인 스토리

리베르소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디자인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계속되는 진화 속에서도 본래의 정신을 유지한 리베르소는 단순한 시계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4 가지 챕터로 구성된 리베르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콘의 스토리는 1931 년 스포츠 시계로 탄생하여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리베르소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봅니다. 극적인 사회 변화를 불러온 격변기에 출시된 독창적인 디자인은 트렌드세터들로부터 빠르게 호응을 얻으며 그 시대의 열망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1960 년대에 아르데코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이 스타일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1975 년에 리베르소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1980 년대, 리베르소의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과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의 매력은 세련미를 추구하는 당대의 취향과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1991 년에 탄생 60 주년을 맞이하여 기계식 컴플리케이션이 장착된 최초의 모델인 리베르소 수아상티엠이 출시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 리베르소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컬렉션으로 거듭났으며, 21 세기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스타일과 디자인의 스토리는 회전 메커니즘을 탑재하도록 설계된 특허 받은 직사각형 케이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곧 아르데코 원칙을 구현하는 슬림한 직사각형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블랙 다이얼의 스틸 버전으로 출시된 지 1 년 만에, 리베르소는 바통 인덱스와 컬러 다이얼, 골드 케이스를 비롯하여 브레이슬릿과 펜던트 또는 핸드백 클립으로 디자인된 여성용 소형 모델과 같은 다양한 버전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9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크기와 소재는 수없이 많이 바뀌었지만, 수평 가드룬, 삼각형 러그, 완벽하게 통합된 회전형 케이스 등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는 계속 그 본연의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보기 드문 디자인이 특징인 리베르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가 되었습니다.

혁신의 스토리는 다이얼과 핸즈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혁신적인 직사각형 회전형 케이스로 시작되었습니다. 1931 년, 이 모델은 파인 위치메이킹의 혁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독특한 직사각형 케이스에는 그 형태에 맞춰 디자인된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충격과 습기,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칼리버를 보호하기 위해 전용 케이싱 링에 고정했습니다.

1931 년 이래로 기존 디자인과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온 리베르소는 아르데코 라인과 균형 잡힌 디자인을 간직한 채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1990 년대에 메종이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기술적 정교함을 향상시키면서 이러한 진화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쿼츠 파동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를 선택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메커니즘을 위한 직사각형 무브먼트를 설계하는 데 성공하고, 정교한 위치메이킹에 대한 전문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 리베르소 수아상티엠(1991 년)
- 리베르소 투르비옹(1993 년)



- 리베르소 미닛 리피터(1994 년)
- 리베르소 크로노그래프 레트로그레이드(1996 년)
- 리베르소 지오그래픽(1998 년)
- 리베르소 쿼텀 퍼페추얼(2000 년)

같은 시기, 리베르소 듀오페이스(1994)와 듀에토(1997)는 케이스백에 두 번째 다이얼을 도입했습니다.

리베르소 셉탕티엠(2001)과 그랑 컴플리케이션 트립티크(2006)와 같은 기념 모델들이 경계를 더욱 넓혀 주었으며 자이로투르비용 2(2008)와 리베르소 트리뷰트 자이로투르비용(2016)을 통해 다축 플라이잉 투르비용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미닛 리피터 리도 모델을 출시했으며 2021년에는 4개 다이얼에 11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리베르소 히브리드 메카니카 칼리버 185 '콰드립티크'를 통해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장인정신의 스토리는 예술적 표현을 담아내는 캔버스로 진화한 리베르소를 집중 조명합니다.

리베르소는 1930년대부터 미니어처 페인팅과 젤스톤, 잉그레이빙, 에나멜링으로 장식되기 시작했으며 미니어처 페인팅은 동양 전통 중에서도 특히 리베르소 아이디어가 시작된 인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초기 의뢰 중 하나로, 카르푸탈라(Karputala) 마하라자는 에나멜로 재현한 부인의 초상화가 담긴 50 점의 리베르소 워치를 주문했고 이는 최초의 에나멜 리베르소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는 분실되었지만, 이와 비슷한 예거 르쿨트르 컬렉션의 1936년 모델에는 트리푸라(Tripura) 주의 마하라니인 칸찬 프라바 데비(Kanchan Prabha Devi)로 추정되는 초상화가 등장합니다. 원래 다이얼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된 메탈 케이스의 여백은 곧 예술성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었고, 리베르소를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전통 장식 공예가 쇠퇴했지만, 1990년대에 기계식 워치메이킹이 부활하면서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리베르소는 1996년 그랑 퓨 에나멜을 특징으로 한 최초의 현대적인 리베르소를 시작으로, 이러한 공예술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6년, 예거 르쿨트르는 젤세팅 장인과 에나멜 장인, 잉그레이빙 장인, 기요세 장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점점 더 복잡하고 혁신적인 장식이 가능해졌고,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메종으로써 리베르소의 명성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2025 년에 새롭게 공개되는 리베르소

예거 르쿨트르는 2025 제네바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리베르소 컬렉션의 9 가지 새로운 모델을 선보입니다. 기존 모델의 디자인에 대한 참신한 재해석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칼리버까지, 새로운 타임피스들은 리베르소 스토리의 4 가지 챕터를 각각 표현합니다.

기술 혁신의 촉매제로서 리베르소를 기리는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미닛 리피터**는 완전히 새로워진 통합형 무브먼트인 칼리버 953 을 탑재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뒷면이 오픈워크로 제작되었으며 7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틸 및 핑크 골드(18K, 750/1000) 소재로 제작된 **리베르소 트리뷰트 지오그래픽**의 칼리버 834 는 리베르소 트리뷰트에 처음으로 월드 타임 컴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직사각형 케이스에 세계 시간을 표시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여기에 특허 받은 그랑 데이트 디스플레이 케이스(특허 CH715152)도 장착되었습니다. 2023 년에 출시된 **리베르소 히브리드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는 이제 화이트 골드(18K – 750/1000) 케이스로 선보입니다.

리베르소에 탁월한 예술적 가치를 더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샤나메’** 시리즈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서사시인 샤나메(Shahnameh)의 삽화를 미니어처로 재현한 4 개 모델로 구성된 컬렉션입니다. 에나멜 케이스백의 각 이미지는 페르시아 미니어처 페인팅 예술을 통해 올해 1931 폴로 클럽 테마의 중심인 말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예 예술을 선보이는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플라워’**의 두 가지 새로운 모델과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의 새로운 모델은 그랑 퓨 에나멜과 다이아몬드, 래커를 다양하고 화려하게 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리베르소의 다채로운 매력과 시대를 초월하는 현대성을 강조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노난티엠 ‘에나멜’**의 새로운 디자인은 뒷면의 장식 에나멜링과 그레이 선레이 다이얼이 돋보입니다. 빈티지한 매력과 현대적인 우아함을 결합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스몰 세컨즈**는 18K(750/1000) 핑크 골드로 제작되었으며, 핑크 골드 밀라네즈 브레이슬릿 및 진귀한 메탈과 어울리는 그레인 다이얼이 특징입니다.

초창기 리베르소 모델의 상징성에 경의를 표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는 2016 년에 디자인되었습니다. 바통 인덱스와 도피네 핸즈, 레일웨이 미닛 트랙이 장식된 심플한 다이얼이 케이스의 기하학적 라인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2025 년을 맞이하여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스몰 세컨즈**의 두 가지 새로운 디자인 버전을 선보입니다. 두 모델 모두 스틸 케이스에 새롭게 디자인된 뒷면 다이얼을 장착했으며, 각각 선명한 블루 앞면 다이얼과 순수한 블랙 다이얼이 장식되었습니다.



장인 정신과 교육 과정을 기리는 공간

부스 주변에 위치한 스테이션에서는 마스터 장인들이 리베르소 아이콘 제작에 필수적인 4 가지 핵심 기술을 보여줍니다.

- **복원:** 매뉴팩처 복원 워크숍의 워치메이커가 시계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특수 기술을 시연합니다.
- **에나멜링:** 매뉴팩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에나멜 장인이 그랑 메종에서 사용하는 네 가지 유형의 에나멜 기법을 시연합니다.
- **혁신:** 연구 · 혁신 부서의 제작자는 프로토타입 및 측정 디스플레이를 통해 미닛 리피터의 정교함을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 **까사 파글리아노:** 세계적으로 유명한 폴로 부츠 제조사인 까사 파글리아노의 멤버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제네바로 이동하여 수제 스트랩을 만드는 여러 단계를 보여주고, 특허받은 히브리스트리플 폴딩 버클을 전시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통합 매뉴팩처에서 마스터한 180 가지 기술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매뉴팩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장인의 관점에서 다양한 워치메이킹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영상 시리즈 'In the Making'을 선보입니다.

부스 위쪽에 특별히 디자인된 공간은 아틀리에 앙투안을 위한 곳으로, 2025 년 체험형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은 리베르소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역동적인 체험형 세션을 통해, 내부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베르소 아카이브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문서들을 살펴보고, 매뉴팩처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리베르소 케이스를 조립하는 과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디스커버리 워크숍은 예약을 통해 모든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틀리에 앙투안의 리베르소 디스커버리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부스를 살펴본 방문객은 참여 및 교육을 위해 고안된 대화형 퀴즈인 Atelier d'Antoine Pursuit 으로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식 모험을 선사하는 1931 카페

예거 르쿨트르는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의 새로운 협업으로 재능 있는 쇼콜라티에인 마티유 다브완(Mathieu Davoine)에게 폴로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미식 경험을 의뢰했습니다. 1931



카페에서는 다채롭고 감각적인 놀라움을 선사하고, 초콜릿에 대한 인식에 도전하는 네 가지 초콜릿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티유 다브완이 특별 제조한 음료와 함께 제공되는 초콜릿은 색다른 텍스처, 예상치 못한 맛의 대담한 조합, 놀라운 시각적 표현을 통해 초콜릿 요리에 대한 그의 실험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워치스 앤 원더스는 2025 년 4 월 1 일부터 7 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며 4 월 5 일 토요일부터 4 월 7 일 월요일까지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2025 년 워치스 앤 원더스의 퍼블릭 데이 티켓은 <https://www.watchesandwonders.com/en/geneva-2025> 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931 폴로 클럽 소개

리베르소의 탄생을 기리는 1931 폴로 클럽은 리베르소의 탄생에 영감을 준 폴로 세계에 경의를 표하며 그 시대의 정신을 담아냅니다. 이 특별한 시계의 탄생으로 정점을 찍었던 10 년은 전례 없는 경제 호황과 기술 혁신의 시대였습니다. 의복과 음악에서 새로운 유행이 탄생했으며, '아르데코'라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운동을 촉발한 사회적, 문화적 격변기였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체육 활동에서 여가 활동으로 진화하고, 스포츠 클럽이 전 세계적으로 사교 생활의 중심이 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858-1947 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용적인 요구에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한 리베르소는 오늘날 아르데코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9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위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